

핵심주제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신조 아베 총리 제 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회담 약속
- 84000명 이상 러시아 국민 '극동헥타르' 취득신청
- 18개국 국민들, 극동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4월 27일, TASS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제 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회담 약속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일본 신조 아베 총리가 모스크바에서 만나 정치, 경제통상, 인문교류 분야에서의 러일관계 발전의 전망을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과 9월 6-7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http://tass.ru/politika/4217645>

2017년 4월 24일, '극동캐피탈'

극동 지역 종합 발전 계획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

극동 지역 종합 발전 계획 및 국가프로그램 '극동부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2017 동방경제포럼에서 2개의 테마세션이 계획되어 있다. 발전계획의 '극동부문' 개발과 국영기업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추가 세션도 계획되어 있다.

국가프로그램 및 공기업의 '극동부문'과 극동지역 종합 발전 계획은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http://dvkapital.ru/regionnow/primorskij-kraj_24.04.2017_9804_vo-vladivostoke-na-vef-prezentujut-kompleksnyje-plany-razvitija-dalnevostochnykh-regionov.html

2017년 4월20일, EastRussia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계획된 '극동의 거리' 축제 1주일간 진행

제 3회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극동의 거리' 축제가 9월 5-10일간 진행된다.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해안도로를 따라 극동 지역들이 각자 전시부스를 만들어 경제 및 문화 업적을 전시한다.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차관에 의하면 올해는 각 지역들이 경제발전모델, 크루즈관광, 의료관광, 해변관광, 민속관광, 에코관광, 농촌관광에 중점을 둘 것이다.

<http://www.eastrussia.ru/news/ulitsa-dalnego-vostoka-na-vef-budet-rabotat-nedelyu>

2017년 4월 19일, Komsomolskaya Pravda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사회부문 우수 프로젝트 발표

2017년 9월 5일 제3회 동방경제포럼 개최일에 '좋은 주에 좋은 일' 지역 프로그램 우승자들의 사회프로젝트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공모전은 교육, 공공, 문화, 종교,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진되며 최소 5000만 루블의 상금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수여된다. 프로젝트는 극동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

<http://www.dv.kp.ru/online/news/2719731>

극동 국가정책

2017년 4월20일, Forumvostok.ru

러시아 국민 '극동헥타르' 취득 신청 84000건 이상 접수

제 3회 동방경제포럼 준비의 일환으로 '극동헥타르' 법안 1주년 결과 및 전망에 대한 전문가 원탁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카차예프 차관에 의하면 총 접수된 84000건의 신청 중 토지 제공이 승인된 건수는 12000개에 달한다.

현재 신청 접수일로부터 토지 취득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33근무일이다. 러시아 토지관리국과 유관기관들간 업무소통의 개선을 통해 토지 제공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21일까지 줄일 수 있다.

<https://forumvostok.ru/eksperty-obsudili-pervyj-god-realizatsii-zakona-o-dalnevostochnom-gektare>

2017년 4월17일, RBK

18개국 국민들, 극동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가 비자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의 목록을 승인하였다. 브루나이, 인도, 중국, 북한, 멕시코, 싱가포르, 일본, 알제리, 바흐레인,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터키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8일짜리 전자비자는 8월 1일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이 진행된다.

입국심사대 테스트는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입국심사대를 시작으로 새 시스템이 도입된다. 향후 외국인들은 전자비자로 자유항 체제가 도입된 극동의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사할린 주, 추코트카, 캄차카 총 5개 지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http://www.rbc.ru/rbcfreenews/58f4a8da9a7947b63015f176>

2017년 4월 17일, NewsMail.ru

극동 투자자들을 위한 핫라인 가동

+7 800 234 8509에 전화로 사업가들은 투자프로젝트 추진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알릴수 있다.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이 개설한 핫라인은 24시간 연중무휴이다. 러시아 국내 전화 통화료는 무료이다.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 페투호프 사장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은 러시아 극동개발부 투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https://news.mail.ru/society/29451762>

극동 경제

2017년 4월17일, TASS

'프리모리에-2' 국제교통로를 통해 첫 운송 개시

시범 운송 컨테이너는 중국 창춘시에서 출발하여 크라스키노 인근 국경을 통과후 연해주 자루비노 항에서 해송으로 대한민국 수취인에게 인도되었다. 시범운송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경유 화물 운송에서 존재하는 장애물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화물 운송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프리모리에2'를 통해 곡물 2300만톤, 컨테이너 화물 1500만톤의 물동량이 있을것이다.

<http://tass.ru/transport/4187612>

2017년 4월 7일, Komsomolskaya Pravda

극동에 세계 최초로 부유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콧트카 페벡에 건설되는 부유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 에너지산업 발전' 국가프로그램의 극동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추콧트카 페벡에 70메가와트급 부유 원자력발전소는 2019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카데미 로모노소프' 부유 원자로와 해안 기술 인프라로 구성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비용은 215억 루블이다.

<http://www.kp.ru/daily/26664.7/368505>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4월26일, RIA News

'캄차카' 선도개발구역의 확장으로 130억 루블 규모 프로젝트 추진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캄차카주 정부가 제안한 '캄차카' 선도개발구역의 주내 4개 지역으로의 확장을 지지하였다. 선도개발구역의 확장으로 민간투자규모 130억 루블의 광산업 및 수산업 단지 조성 분야 8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진다.

<https://ria.ru/economy/20170426/1493156073.html>

2017년 4월 22일, TASS

극동에 16번째 선도개발구역 조성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하바롭스크 주 '니콜라옌스크' 선도개발구역 조성에 대한 시행령에 서명하였다. 9명의 투자자들이 조성되는 선도개발구역에서 프로젝트 추진 의향을 밝혔다. 주요 활동분야들은 어업, 양식업, 수상교통, 기계 및 장비 수리와 설치이다. 민간투자총액은 31억 루블 이상이다. 24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http://tass.ru/ekonomika/4203312>

2017년 4월17일, REGNUM

하바롭스크와 소베츠키야 가반, 자유항 체제 도입

해당 시행령은 준비되어 있으며 제 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극동개발부측은 자유항 체제가 해당 도시들에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것이라 전망한다고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차관이 밝혔다. 특히 외국 사업가들을 위해 전자비자를 통한 입국 간소화가 제공된다.

<https://regnum.ru/news/economy/2263887.html>

2017년 4월 14일, Finmarket

인프라 개발을 위해 극동 투자자들에게 340억 루블 지원

해당 지원금 덕분에 사업가들은 현대식 인프라 조성 지출을 충당하고 전력 및 가스망에 연결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정부회의에서 밝혔다.

인프라 개발 지원금 취득 자격 조건들로 창출된 부가가치, 지역 및 연방 정부 재정으로 납부된 프로젝트 추진관련 세금 및 필수 납입금, 또한 국가지원금 1루블 당 유치된 민간투자액 등이 있습니다.

<http://www.finmarket.ru/database/news/4509538>